

## “윤석열 폭정 함께 걷어내자”

5.31 총파업 조직 대전충북지부 현장순회 ... 한국타이어지회, 사측 화재 책임·일방 배치전환 중단 투쟁

금속노조와 각 지부가 5.31. 총파업 조직화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등 노조 임원, 상집위원, 지부 임원과 집행위원들이 5월 11일 대전충북지부를 찾아 힘 있는 총파업 조직화를 당부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 금산공장 현장순회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농성장 집회 ▲유성기업영동지회 현장순회 ▲코스모링크지회 현장순회 순으로 일정을 소화하면서 조합원, 간부들을 만나 노조가 5.31. 총파업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집회에 함께한 윤장혁 위원장은 “한국타이어에서 조합원들이 당하는 극악한 노동 탄압을 절절히 확인했다” 라면서 “화재 책임은 분명 회사에 있다. 회사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3월 29일 주주총회 당일 계약직 노동자들에 계약 해지 통보했다” 라며 분노했다.

지난 3월 1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2공장이 모두 탔다. 화재 전



과 비교해 생산량은 25%로 줄었다. 한국타이어는 화재를 핑계로 4월 말까지 협력업체 노동자 260여 명을 내쫓았다. 한국타이어 정규직 노동자 60여 명도 사측의 압박으로 노동절을 기해 명예퇴직했다. 남은 노동자들은 전환배치를 강요받았다.

윤장혁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지회가 다수노조가 된 이후 죽음의 공장에서 민주노조를 일구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투쟁 중이다. 한국타이어지회장은 공장 본관 로비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라면서 “어용노조 굴레에서 고통받던 지난 60년 세월로 돌아갈 수 없다. 금속노조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자” 라고 독려했다.

윤장혁 위원장은 건설노조 탄압, 금속노조 탄압, 검찰 공안정국 조성, 이태원 참사 등 윤석열 정권의 악행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금속노조 총

파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고통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했다” 라며 “대전충북 동지들과 투쟁해서 윤석열 정권 폭정 걷어내겠다” 라고 다짐했다.

정리하고 반대와 고용안정을 걸고 대전공장 본관 로비에서 농성 중인 김용성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한국타이어지회장은 “화재 사고를 노조와 회사가 힘을 합쳐 해결하자고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응답하지 않고 있다” 라며 “회사와 정면승부 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성 지회장은 “우리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화재 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끝까지 노동자를 책임지는 노력을 하라는 것, 노동조합과 대화하자는 것이다” 라면서 “금속노조와 함께 사측의 일방 전환배치와 일방통행을 막아내자” 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5월 24일까지 전국 사업장을 돌며 지부·지회·교섭위원 간담회, 현장순회 등으로 5.31. 총파업 동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계획이다.

# 더 아래로 · 더 왼쪽으로, 이주 · 정주노동자 함께 싸운다

[사람과 현장] 21년 역사의 신규 지회,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 - 1편

4월 30일 133주년 세계노동절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결의대회를 앞두고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를 찾았다. 약속 시각보다 조금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강제추방 반대 집회를 마치고 돌아온 지회 간부들을 계단에서 마주쳤다.

김희정 성서공단지역지회장과 윤다혜 이주사업부장이 지회 사무실 문을 열어줬다. 두 사람이 짐을 정리하는 사이 지회 인근에 주차를 마친 차민다 부지회장이 사무실에 들어와 인사를 나눴다. 지회는 여러 언어로 적힌 이주노동자 권리 수첩을 사무실 한쪽에 비치해두고 있었다.

윤다혜 부장은 자신이 노조 회계 업무와 베트남 조합원 조직, 진료소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상근 활동은 2018년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차민다 부지회장은 2019년 상근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주노동자 상담, 스리랑카 조합원 조직 등을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는 신규지회다. 지회는 2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한다. 두 문장은 서로 모순처럼 보이지만, 어느 쪽도 거짓이 아니다. 성서공단지역지회는 지난 2022년 12월 금속노조에 가입한 신규지회가 맞다. 그러나 성서공단 운동 역사는 20년이 훌쩍 넘는다.

성서공단지역지회의 조합원 규모는 150여 명 남짓이다. 대부분이 이주노동자고, 정주노동자는 20명 미만이다.

지회는 한국인이나 내국인 노동자 대신 정주노동자라고 부른다. 정주노동자라는 용어가 특정 국가나, 국적의 노동자를 지칭하지 않아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지회는 2002년부터 2022년까지 민주노총 대구본부에 직가입한 성서공단노조(STU)로 20년 넘게 활동했다. 활동가들은 금속산업연맹 시절부터 영세사업장이 밀집한 성서산업단지(성서공단)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이 열악한 정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희정 지회장은 “성서공단노조는 2002년 성서공단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 해보자는 목표로 출발했다”라며 “작년이 딱 20년이



였다. 전국에서 이주노동자와 정주노동자가 함께하는 유일한 지역노조였고, 정주노동자보다 이주노동자 조합원 숫자가 훨씬 많은 노조기도 했다” 라고 설명했다.

## 21년 역사의 신규 지회

김희정 지회장은 “성서공단지역지회는 ‘더 아래로, 더 왼쪽으로’라는 슬로건에 걸맞은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면서 “더 많은 활동을 여러 동지와 함께하기 위해서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이제 4개월 차 병아리다. 아직 금속노조에 대해서 배우는 중이다” 라며 웃었다.

2022년 12월 성서공단노조는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로 산별 전환을 완료했다. 과정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지회 안팎을 모두 설득해야 했다. 지회는 지난 20년 활동에 쉼표를 찍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다.

김희정 지회장은 “노동조합에 가입조차 못 하는 영세한 사업장 노동자들을 민주노총이 어떻게 할 거냐. 우산 안으로만 들어오라고 할 게 아니라, 더 큰 우산을 펼쳐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기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직가입 노조를 유지했다”라고 회고했다.



김희정 지회장은 “그렇게 지난 20년 실험으로 성과와 한계를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 내용을 많은 사람에게 확장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며 “올해 조선업에 이주노동자가 대거 들어오니 조직화도 함께 하고, 또 금속노조가 잘하고 있는 점은 배우려 한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현재 금속노조에 12개 국가에서 온 300여 명의 이주노동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해있다.

윤다혜 부장은 “다른 노조보다 금속노조에 제조업 노동자가 많다. 제조업이 많으면 이주노동자가 많고,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변화를 만들어 내려면 금속노조에 들어가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라

며 산별 전환을 택한 이유를 밝혔다.

차민다 부지회장은 “같은 현장에 서 일하면서 평등한 권리를 위한 공통 요구를 만들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며 “이주노동자를 약자로 여기기보다, 같은 노동자로서 함께하는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부연했다.

산별 전환에 앞서 걱정은 없었을까? 김희정 지회장은 “독자 노조로 있으면서 재정은 어려웠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하면 바로 집행하는 아주 간단한 구조였다. 성과나 한계도 금방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반면 금속노조는 큰 조직이니까 우리 방향성이 흐려질까 봐 조합원들이 많이 걱정했다”라고 답변했다.

윤다혜 부장은 “금속노조 전환 추진 당시 코로나 19 상황이라 대면이 어려워서 국가별 리더를 중심으로 줌,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했다”라고 말했다. 성서공단지역지회는 현장위원으로 국가별 리더를 두고

있다. 스리랑카, 베트남 등 각 국가 리더는 지회 일정 공지나 생활정보 등을 해당 국가 조합원들에게 전달하거나, 의견을 모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윤다혜 부장은 “전환 이후 국가별 리더들은 금속노조 조합원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일반 이주조합원들은 그렇지 않다. 아직 자신이 성서공단노조 조합원이라고 생각한다. 인식을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라고 진단했다.

금속노조로 온 뒤 목표나 활동 방향이 달라졌는지 물어봤다. 차민다 부지회장은 “지회가 최근 공단 내 한 사업장에서 정

주노동자, 이주노동자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금속산업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받도록 하는 요구안을 쟁취했다”라며 “금속노조가 이렇게 힘이 있다고 알려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차민다 부지회장은 “얼마 전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단속에 항의하는 집중 집회를 하고 있을 때, 금속노조 간부들이 많이 와서 투쟁에 함께했다”라며 “우리는 모두 노동자다, 언제든지 당신들과 함께 요구하고 싸울 수 있다고 알린 것이다. 이런 연대를 통해 금속노조에 이주노동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 2편에 계속.